

제73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7월 26일)

반가사유상

김혜원, 사유의 방 18:00~18:30

사유의 방에 전시되어 있는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옛 국보 제83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불상 중 하나입니다. 반가사유상이 전하는 사유, 생각이라는 주제를 만나며 우리는 유사한 주제를 다룬 또 다른 명작,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의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 두 걸작을 나란히 놓고 보면, <반가사유상>보다는 <생각하는 사람>에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현된 인물은 머리를 깊이 숙이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있고 입은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는 고뇌와 생각의 무게가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가사유상>에 표현된 보살 역시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과는 달리, <반가사유상>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흐르며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머리는 약간 앞으로 숙이고 손가락을 뺨에 살짝 대고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우아한 손짓은 <생각하는 사람>에서 무거운 머리를 받치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손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반가사유상>의 보살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반가사유상의 도상이라는 맥락에서 찾아보고, 나아가 사유의 방에 전시되어 있는 두 점의 반가사유상(옛 국보 제83호와 제78호)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림1. 반가사유상, 7세기 초, 높이 90.8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2. 생각하는 사람, 1910년경 주조, 높이 70.2cm,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집모양 토기- 살림집일까, 곳간일까?

최경환,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집모양 토기[家形土器]는 실제 집을 본떠 만든 토기로, 신라와 가야의 건물 구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모양은 크게 두 종류, 즉 살림집과 곳간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안은 비어 있고 액체를 담는 굴뚝모양 깔때기와 액체를 따라내는 주둥이가 붙은 형태입니다.

○ 대구 현풍 출토 집모양 토기(그림1)

사다리가 있는 출입구 쪽에서 보면 맞배지붕이고, 반대편에서 보면 모임지붕인 집모양 토기입니다. 용마루는 맞배지붕에서 뚜렷하다가 모임지붕으로 갈수록 밋밋해집니다. 지붕면에는 별다른 무늬가 없지만 지붕을 눌러주는 새끼줄 또는 나무틀이 표현되어 있어 이엉이나 나무판자를 얹은 지붕을 묘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토기에 대해 살림집으로 보는 의견과 동물 우리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 창원 다호리 B-1호 무덤 도랑 출토 집모양 토기(그림2)

지붕 부분과 벽체 및 기둥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맞배형인 지붕에는 가로 2줄, 세로 2줄의 점토 띠가 붙어있어 초가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용마루와 지붕 가장자리 내림마루에 점토 띠가 붙어있습니다.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 도리와 대공 점토 띠가 달렸습니다. 곡물을 보관한 곳간을 본뜬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림1. 대구 현풍 출토 집모양 토기



그림2. 창원 다호리 B-1호 무덤 도랑 출토 집모양 토기와 복원품





제73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7월 26일)

조선을 바꾼 두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김진실, 118호 조선Ⅱ실 19:00~19:30

조선은 16-17세기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이라는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되어 조선, 명, 일본이 참전한 동아시아 국제전이었습니다. 조선은 7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떠안았고, 조선에 군대를 보낸 명은 북방에서 성장한 후금을 견제하지 못하고 명청교체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일본은 에도막부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병자호란은 임진왜란 이후 격변한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청의 침입으로 일어났습니다. 조선은 세력을 키운 후금(청)에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다시 큰 전쟁을 겪고 굴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이 두 전쟁은 조선시대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조선후기에는 이 두 전쟁을 일컬어 양난兩難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은 무기 기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신무기인 조총鳥銃으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화약무기로 반격을 가했습니다. 살상력이 높은 대형화포를 판옥선이나 거북선에 실어 일본 군선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독창적인 화약무기인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도 발명했습니다. 일본의 조총을 노획하여 제조기술을 확보했고 명나라의 무기술을 수용하여 삼안총三眼銃과 불랑기佛朗機 등을 개발했습니다.

전쟁은 계층을 가리지 않고 참혹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 상처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전쟁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위정자는 통렬한 반성을 기록하였습니다. 도망간 관군을 대신하여 지역의 백성을 지킨 의병장도 있었습니다. 백성은 피란살이를 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생생한 경험은 기록으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전쟁이 끝난 뒤 국가에서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을 공신으로 책봉하여 그 공적을 기렸습니다. 민간에서는 장수, 의병장, 순절자의 이야기를 소설과 전기로 만들었습니다. 전쟁 영웅의 활약상을 주제로 한 소설을 읽으며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전란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모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기억은 계속되었습니다.

제73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7월 26일)

조선왕실의 바람을 듣다 - 16세기와 19세기 왕실발원 불화

유경희, 203호 불교회화실 19:00~19:30

부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자를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서원이 있습니다.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이루는 원願도 있고 어떤 일의 성취를 맹세하고 소망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불교미술품을 조성할 때 그 성취를 이루고자 기록하는 글을 발원문發願文, 원문 願文, 서원문誓願文이라고 하는데, 전통시대에 조성된 불화나 불교조각의 발원문 등을 통해 현재의 우리는 과거 속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기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은 억불抑佛의 시대였지만 왕실에서는 사찰의 불사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등 불교의 전폭적인 후원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왕실이 발원한 불화 속에는 왕실의 안녕과 선왕 선후의 추복, 후사의 계승을 명분으로 했기 때문에 유교적 입장에선 유신儒臣들에게도 용인되었습니다. 조선시대를 통해서 가장 많은 왕실발원 불화를 남긴 시기는 16세기와 19세기였습니다. 조선시대 전기와 말기로 대표되는 이 시기의 대표작 2점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왕실에서 발원한 불화를 통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림1. 상원사 사불회도, 1562년, 비단채색, 77.8×55.2cm



그림2. 내원암 아미타불회도, 1831년, 비단채색, 134.8×183.3cm